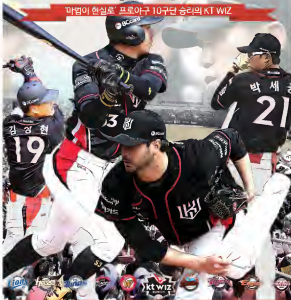
경기도 반값 복비 실시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31일 www.metroseoul.co.kr

정동영 관악을 출마

Baseball p/3
KT WIZ 이끄는 조범현 감독
metro
Baseball p/12 13
KT 치어리더 '레이디위즈'
Lions
Heroes
Dinos
Twins
kt wiz
Tigers
Eagles
Bears
반갑다! 수원KT
'마법이 현실로' 프로야구 10구단 승리의 KT WIZ
BCcard
김상현
19
53
박세웅
21

2015 프로야구가 개막, 올린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KT 대 롯데 개막 경기. KT 김상현이 1회초 3점 홈런을 때리고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된 신생팀 'KT위즈' 돌풍 기대하라

김상현 개막전 홈런 2방 등 투타 무시 못할 전력…롯데와 명승부

KT 위즈는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보호선수 20인 외 특별지명을 통해 9명의 선수들을 영입했다. 김상현·이대형·용덕한 등 베테랑과 이성민·정대현·장시환 등 유망한 자원들을 골고루 지명했다. 여기에 장성호와 FA 3인방 김사율·박기혁·박경수를 영입하면서 팀 전력이 급상승했다.

시범경기 9위(4승8패)를 통해 본 KT는 우선 마운드에서 안정감을 보였다. 필 어윈·앤드류 시스코·크리스 옥스프링의 외국인 용병 3인방에 특급 신인 박세웅이 4선발로 가세하며 선발진 위용을 갖췄다. 남은 한 자리는 장시환과 정대현 등이 경쟁중이다. 불펜진은 이준형·고영표·이성민 등이 가능성을 보였다.

2015 프로야구가 막을 올린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가한 신생구단 KT 조범현 감독과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서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마무리다. 마무리로 영입한 김사율은 서른여섯의 적지않은 나이로 시범경기에서 부진했다. 조범현 감독은 "믿고 맡기겠다"고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시즌 초반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격력도 아직은 물음표(?)다. 시범경기 팀타율은 0.219로 10개 구단 평균 0.250에 한참 처졌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북부리그 타격왕 김사연과 출루율 1위 김동명 등 쟁쟁한 재목이 많지만 이들이 1군 투수들에게 얼마나 적응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김사연은 시범경기서 2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

리드오프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대형은 출루율을 더 높여야 한다. 중심타선에 배치될 외국인 타자 앤디 마르테, 김상현, 장성호 등은 아직 믿음직하지 않다. 다만 시범경기에서 부진했던 김상현이 롯데와의 개막전에서 홈런 2방을 터트려 조범현 감독을 흡족하게 했다. 박경수와 하위 타선에 배치될 신명철, 용덕한, 박기혁이 시범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뽐낸 것도 위안이다.

수비력은 탄탄하다. 안방을 지킬 용덕한은 1군 통산 474경기에 출전했을 정도로 베테랑이다. 백업 포수 안중열은 시범경기에서 12개의 도루 시도 중 5개를 잡아내며 정확한 송구력과 강한 어깨를 과시했다.

1루수 신명철, 2루수 박경수, 유격수 박기혁, 3루수 마르테로 이어지는 내야진은 믿음직하다. 신명철은 시범경기를 통해 여러 차례 호수비를 펼쳤다. 박경수·박기혁의 키스톤 콤비의 호흡도 나쁘지 않다.

외야에는 발이 빠르고 수비 범위가 넓은 이대형, 김사연이 버티고 있다. 김사연은 아직 수비에서 서투른 감이 있지만 강한 어깨가 매력적이다.

롯데와의 개막 2연전에서 KT는 1차전을 9-12로 패했고 2차전에서도 4-5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두 경기 모두 치열한 혈전을 펼쳐 전문가들은 "KT가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이번 시즌 프로야구 흥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민준기자 mkun@metroseoul.co.kr

◆ KT 위즈 예상 라인업

타순= 1번 이대형(중견수) 2번 김사연(우익수) 3번 박경수(2루수) 4번 앤디 마르테(3루수) 5번 김상현(좌익수) 6번 장성호(지명타자) 7번 신명철(1루수) 8번 용덕한(포수) 9번 박기혁(유격수)

선발진= 필 어윈, 앤드류 시스코, 크리스 옥스프링, 박세웅, 장시환

불펜= 이준형, 고영표, 이성민

마무리= 김사율

지역 밀착 의미 강조…첫 홈·원정 심볼 다르게

'제10구단' KT 위즈는 국내 처음으로 홈-원정 유니폼에 따라 각각 다른 이니셜과 이미지 심볼을 사용했다.

구단 이니셜인 K(KT)와 W(Wiz)를 이용한 이니셜 심볼은 원정경기용 유니폼에 기동력과 유연성을 표현한 이미지 심볼은 홈경기용 유니폼에 사용된다.

홈경기용 심볼

KT디자인센터의 임세희 팀장은 "타 구단이 이니셜 심볼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KT는 이미지 심볼도 함께 사용했다"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엠블럼은 이니셜·이미지 심볼과 더불어 연고지인 수원시를 표현했다. 지역밀착형 구단 염원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또한 마스코트는 승리를 의미하는 '빅토리'에서 착안했다. '빅'과 '또리'라는 몬스터 들이 KT를 승리로 이끄는 응원단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스코트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적극 반영했다.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은 KT 브랜드 컬러인 빨간색과 검은색을 기본으로 했다. 움직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소재 선택에도 공을 들였다.

한편 KT 위즈 브랜드 디자인은 '에이디자인 어워드'와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 등 총 4건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에이디자인 어워드'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디자인 행사로 매년 산업·공간·인터랙션 디자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디자인을 심사한다. KT는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KT 위즈 BI로 금상을 받았고 토이&게임 부문에서 KT 위즈 마스코트인 '빅'(vic)과 '또리'(ddory)로 은상을 받았다. /정민준기자

원정경기용 심볼

"베테랑·신인 조화 이끌어 내겠다"

KT 위즈 이끄는 조범현 감독

조범현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OB 베어스 원년 멤버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고향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으며 1993년 시즌을 앞두고 은퇴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 쌍방울 레이더스, 2000년 삼성의 배터리 코치를 역임했다. 그리고 2003년 SK 와이번스 지휘봉을 잡으며 감독으로 데뷔했다. 조 감독은 하위권을 전전하던 SK를 정규시즌 4위에 올려놓았고 한국시리즈까지 진출시키며 명장 대열에 합류했다.

2009년엔 KIA 타이거즈 감독을 맡으며 전년도 6위에 머물렀던 팀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다. 그러나 KIA는 2010년 정규시즌 5위, 2011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조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후 야인 생활을 거친 뒤 2013년엔 포수 인스트럭터로 선수들을 육성했다.

마침 2014년 시즌을 앞두고 KT 위즈라는 신생팀이 생기면서 조 감독이 초대 감독으로 낙점됐다. 세밀한 관리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점 등이 신생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젊은 선수들을 키워야하는 KT로서는 이견이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숱한 감독 경험에도 신생팀을 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조 감독은 "선수들을 외부에서 데려와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부분이 어린 선수들이었기에 접근 방식도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퓨처스리그 경기와 강훈련을 병행하며 선수들을 조련했다. 세심한 관리 속에서 선수들은 면밀히 분석됐고 젊은 선수들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다. 겨울에는 주전급 선수들을 보강하며 1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조 감독은 선수들에게 "줄석몽촉(정신을 집중하면 놀라운 힘이 나올 수 있음을 뜻하는 고사성어)의 정신으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물론 신생팀이기 때문에 당장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조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백업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여럿 발굴했으나 시범경기를 통해 느낀 바가 많았다. 개막을 앞두고 있던 조 감독은 "기존 팀들하고 전력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시범경기를 돌아봤다. 이어 "계산대로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걱정이 많이 든다. 하지만 기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감독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주전 선수들을 받칠 수 있는 선수들의 더딘 성장이다. 그는 "주전이야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줘야 한다. 백업 선수들과 실력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한가지 걱정은 좋은 성적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 조 감독은 "젊은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서 기량이 오르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조 감독의 생각이다. 그는 "경험이나 전력 면에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신생팀답게 패기와 근성으로 끝까지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면서 "야구 발전과 흥행에 있어서도 KT가 큰 힘이 됐으면 한다"는 변함없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 팀이 어느 정도 할지 궁금한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신생팀 승률 기록을 깨고 싶다"고 전했다.

세밀한 선수 관리·데이터 분석의 대가
"패기·근성으로 신생팀 기록 깨고 싶다"

신생팀이 단숨에 중간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선수 구성이나 짜임새 면에서 다른 구단에 비해 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KT의 선전을 가장 기대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조 감독의 지도력이다. 그동안 하위권 처진 팀을 맡으면서도 강팀으로 변모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KT가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마법을 현실로! 승리의 KT 위즈!'라는 문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illegible]

‘전 LG테이블세터’ KT서 다시 뭉쳤다

‘수퍼소닉’ KT 공격의 마법을 걸어라

리드 오프 이대형

2011년 11월 조범현 KT 감독은 9개 구단의 특별지명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1군 무대 진입을 앞두고 전력보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다. 구단 별로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가운데 한 명씩 뽑을 수 있었다. 9개 구단은 머리를 맞대고 보호선수 명단 20명을 선택해 명단을 KBO에 제출했다.

명단을 받아본 조 감독은 무릎을 쳤다. 창단 첫 테이블세터진 구축에 고민을 거듭했는데 KIA에서 이대형이 나온 것이다. 두말없이 이대형을 낙점했다. 2013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어 KIA 유니폼을 입은 이대형은 1년만에 KT맨으로 변신했다. 이대형은 2014시즌 타율 0.323에 22도루 75득점을 올리며 화려하게 재기했다. KT에게는 안성맞춤 선수였다.

2003년 LG에 입단한 이대형의 장점은 단 한번도 장기 부상 공백이 없을 만큼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다. 빠른 발을 갖춰 안타 생산력이 높은데다 도루는 그의 장기이다. 네 번이나 도루왕을 차지하며 통산 401도루를 기록했다. 폭넓은 외야 수비력까지 갖춘 전형적인 밥상맨 이다.

젊은 후배들과 함께 피아자키 스프링캠프를 무사히 마친 그는 시범경기에서 30타수 9안타를 기록하며 개막 예열을 마쳤다. 지난 2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개막전 첫 날은 존재감이 있었다. 2번 타자로 출전해 1회 첫 타석에서 안타를 터트려 4득점의 발판을 놓았다. 4회 무사 2루에서는 착실하게 희생번트를 보내 주자를 3루에 안착시켰다.

2차전에서는 1번 타자로 나섰지만 3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도중 교체됐다. 결국 개막 2연전에서 7타수 1안타에 그쳤다. 활발한 공격력을 기대했던 이대형은 아니었고 팀은 아깝게 2연패를 당했다. 그렇다고 이대형이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다. 이제 시즌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T는 31일 최강 삼성을 상대로 역사적인 홈 개막전을 갖는다. 그룹 직원들과 홈 팬들의 응원 속에서 창단 첫 승이 목마르다. 첫 승을 낚기 위해서는 이대형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13년 동안 보여준 이대형 스타일의 안타와 도루, 저돌적인 공격이 필요하다. 이대형의 나이는 32세. 아직 팔팔한 청춘이다. 이대형이 웃는다면 KT도 웃을 수 있다.

‘괴력의 김상사’ 컴백! 홈런포 장착

중심타자 김상현

김상현은 2009년 4월 LG에서 친정 KIA로 돌아왔다. 어느 누구도 김상현의 활약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신의 한 수가 됐다. 3루수 주전으로 출전해 중심타자로 자리잡았다. '벽조이' 최희섭과 CK포를 구축해 리그를 지배했다. 타율 0.315에 36홈런 127타점.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고 KIA는 창단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그것이 다였다. 2009년 각종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무릎을 치료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2010년 무릎 통증을 이기지 못하며 79경기 출전에 그쳤다. 21홈런을 때렸지만 53타점으로 줄어들었다. 부상과 상대의 견제에 예전의 폭발력이 사라졌다. 2013년에는 SK로 트레이드 되는 비운을 맛보았다. SK에서도 기를 펴지 못했다. 2014시즌까지 부진했고 주전 자리도 빼앗겼다. 타율 2할대의 평범한 타자로 되돌아갔다.

야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즈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2014년 11월 신생팀 KT 위즈의 특별지명을 받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지만 2009년 KIA 우승을 이끌었던 옛 스승 조범현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스승과 다시 한번 역사를 함께 쓰고 싶은 의욕이 솟아났다.

강렬한 재기 의지는 개막전에서 드러났다. 지난 2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개막전에서 5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을 올렸다. 1회 첫 타석에서 구단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2사 1, 2루에서 롯데 선발 브룩스 레일리의 바깥쪽 빠른 공을 밀어쳐 3점 홈런을 날렸다. 창단 최초 홈런과 최초의 타점은 동시에 작성됐다. 3회에는 무사 1, 3루에서 가볍게 좌전안타를 날려 타점 1개를 보탰다.

진짜 괴력이 발휘된 것은 세 번째 타석이었다. 선두타자로 등장해 롯데 투수 홍성민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다. 정확히 맞은 건 아니었지만 특유의 힘으로 밀어붙인 한 방이었다. 김상현은 4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추가하며 4안타로 맹타를 완성했다.

다음날 개막 2차전에서는 안타와 타점 1개를 추가했다. 존재감을 드러낸 개막 2연전이었다. 절실함을 갖고 준비한 끝에 김상현 경계령을 발동했다. 드디어 괴력의 김상사가 돌아온 것이다. 김상현은 31일 수원 홈 개막전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직에서 이루지 못한 창단 첫 승이 그의 방망이에 걸려있다.

/OSEN

경험 많은 베테랑… 후배들의 훌륭한 교본

정신적 지주 리더십 선수들 이끈다

주장 신명철

신명철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다. 공수주를 겸비한 내야수로 평가받았다. 점차 프로에 적응했고 2006시즌엔 116경기에 출전해 21도루를 기록하는 등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2007년에는 강영식과 트레이드 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해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2에 5홈런 19도루를 기록했다. 2009

시즌에는 타율 0.291에 20홈런 21도루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20-20 클럽에 가입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다음 시즌에도 타율 0.289에 9홈런 20도루로 활약을 이어갔다. 2011~2012시즌에는 한국시리즈에 출전하며 삼성의 우승에 일조하는 등 맹활약했다. 하지만 그 후 하락세를 겪으며 팀 내 경쟁에서 밀렸다. 결국 2013시즌이 끝난 뒤 자진 방출을 요청했고 KT에 입단했다.

조범현 감독은 신명철을 초대 주장으로 낙점하며 젊은 선수들을 이끌기를 바랐다. 지난해 퓨처스리그서 주전 2루수로 활약하며 주장의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새로 KT에 들어온 최고참 장성호는 "신명철이 젊은 선수들을 정말 잘 이끌어온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 시즌에도 주장 임무를 맡으며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 특히 주 포지션을 1루수로 바꾸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신명철은 시범경기 9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0.300(20타수 6안타)을 기록하는 등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수비에서도 2루수 출신답게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감을 자랑했다. 비록 전성기 시절의 화려한 플레이는 다소 희미해졌지만 주장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신명철은 올 시즌을 앞두고 "꼴찌는 안 하겠다. 이번에 선수 보강을 많이 해서 전력이 좋아졌다. 또 신인 선수들은 포함해 기존 선수들도 모두 패기가 넘친다. 꼴찌를 넘어서 가능하다면 5강까지도 넘보고 싶다. 모두 하나 돼 파이팅 넘치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스나이퍼' 마지막 불꽃…KT 전설 된다

지명타자 장성호

장성호는 올해로 입단 20년째를 맞는다. 1996년 해태에 입단해 주전타자로 활약하며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친다'는 안타제조기로 이름을 날렸다. 통산 2072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양준혁, 전준호, 이병규와 함께 한국에 네 명뿐인 '2000안타 클럽'에 가입한 특급 선수이다.

안타 생산이 중단될 뻔한 적도 있었다. 2010년 한화로 이적해 2013년 롯데 유니폼을 입었지만 옛처럼 재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2014년 단 5경기 출전에 그치며 은퇴 위기에 몰렸다. 방출통보를 받은 것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듯 했다. 은퇴를 생각할 때 조범현 감독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조 감독과의 악연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자신을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는 조 감독에게 불만을 품고 KIA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조 감독이 이끄는 KIA가 2009년 우승할 때 장성호는 벤치 멤버였다. 타이거즈의 적자임을 자부했는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트레이드를 자청해 팀을 떠났다.

그러나 인생은 돌고 도는 법. 매몰차게 뿌리쳤던 장성호를 따뜻하게 받아준 것은 스승이었다. 작년 퓨처스 경기장에서 장성호는 조 감독을 찾아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잘못을 빌었다. 조 감독은 "몸 잘 만들고 있어라"라는 말로 의중을 전했다. 시즌이 끝나면 부르겠다는 의미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4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됐다.

조 감독이 장성호를 부른 것은 현실적으로 수비와 타격에서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했다. 신명철, 박기혁, 김상현, 이대형 등과 함께 타선의 중심 노릇을 해주면서 젊은 후배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타격 비법과 벤테랑와의 수싸움은 후배들에게는 훌륭한 교본이다.

장성호는 미야자키 스프링캠프 때판 잠염으로 귀국했으나 강도 높은 훈련량을 모두 소화하는 근성을 발휘했다. 시범경기에서는 홈런을 터트리는 등 명불허전의 타격을 보여주었다. 개막 2연전에서 거둔 성적은 3타수 1안타 1볼넷. 1차전에서는 대타로 나서 볼넷을 골랐고 2차전은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안타 1득점을 신고했다. 삼성과의 홈 3연전에서 스나이퍼의 저격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OSEN

kt skylife

스카이라이프의 똑똑한 서비스,
스마트 PVR!

VOD, 아직도 돈내고 보세요?
무제한 저장! 다채널 동시녹화 및 시청! 실시간 타임머신!
언제든 무료시청 가능!

자신만만 유망주 '승리 돌풍' 힘 보탠다

루키 박세웅

루키 배병옥

고졸 150km 씽씽투… 배짱 두둑 4선발 낙점

우완 정통파 박세웅은 경북고등학교 시절부터 경북 지역 최고의 투수 중 하나로 이름을 날렸다. 청소년대표팀에서도 활약하며 2014년 1차 지명으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박세웅은 140㎞ 중후반대의 빠른 공을 던지며 예리한 슬라이더를 던진다. 지난 시즌에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커브를 집중적으로 연마하며 한 단계 성장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조범현 감독은 지난해 퓨처스리그를 앞두고 일찌감치 에이스로 박세웅을 점찍었다. 그만큼 박세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뛰어났다.

지난 시즌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며 21경기서 9승 3패 평균자책점 4.12를 기록했다.

당초 본인 스스로 세웠던 목표인 복부리그 다승왕을 지지했고 양대 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118이닝을 소화했다. 최다 탈삼진(123탈삼진) 역시 박세웅의 몫이었다.

무엇보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시즌을 치른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제주도 마무리 캠프, 일본 스프링캠프를 거치며 박세웅은 여전히 좋은 계력과 구위를 뽐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수 3인방에 이어 4선발로 낙점됐다. 연습경기는 물론이고 시범경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시범경기 2경기서 2승 평균자책점 0(11이닝 무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야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세웅은 1군 타자들을 상대하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긴장되지 않았다. 경기에 임할 때 항상 '내 공만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오른다. 어떤 경기에 등판해서도 자신 있는 공을 던지려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물론 박세웅이 정규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배짱투'를 봤을 때는 KT의 돌풍을 이끌 책임자로 꼽힌다. 아울러 올 시즌 프로야구에 새 바람을 일으킬 만한 대형 신인의 모습도 엿보인다. /OSEN

5툴 플레이어… 외야 구멍 생기면 지원사격

외야수 배병옥은 성남고등학교 시절부터 5툴 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렸다. LG는 지난 2014년 신인지명회의에서 2차 1라운드로 배병옥을 선택했다. 미래 외야진을 이끌 재목으로 빠르게 선점한 것이다. 당시 정성주 LG 스카우트팀 차장은 "(배병옥은) 5툴이 다 되는 선수다. 세기가 조금 부족하지만 기존 외야수들의 나이가 있는 만큼 지명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배병옥은 고졸 선수지만 외야 수비만큼은 1군 선수들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깨가 강해 송구력이 뛰어나고 빠른 발로 수비 범위도 넓다. 여기에 타격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장타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는다. LG는 기존 베테랑 외야수들의 하락세를 대비해 배병옥을 천천히 키우려 했다.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뛰며 83경기서 타율 0.286에 2홈런 15도루 45타점 4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상무 입대를 계획했던 배병옥은 아쉽게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KT가 보호선수 20인 외 특별지명에서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조범현 감독은 퓨처스리그에서 배병옥의 활약을 유심히 관찰한 끝에 특별지명으로 그를 영입했다.

조 감독은 배병옥에 대해 "좋은 DNA를 가졌다.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봐왔는데 기본적으로 빠르고 송구가 강하다. 또 손목 힘이 좋아 펀치력이 좋다"며 극찬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를 묻는 질문에도 고민 없이 '배병옥'이라고 답했다.

배병옥은 일본 스프링캠프에서도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연습경기를 거의 거르지 않고 출전했다. 일본팀을 상대로 2루타와 홈런을 날리는 등 맹활약했다. 이후 시범경기에서 12경기에 출전했으나 타율 0.131(15타수 2안타)로 다소 저조했다. 조 감독은 "아직은 힘이 더 붙어야 한다. 1군과 2군을 오갈 것 같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배병옥은 당당히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좋은 출발을 했다. 비록 타격에서는 약점을 드러냈지만 빠른 발, 타구를 쫓는 능력, 강한 어깨 등은 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외야 주전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조금씩 경험을 쌓는다면 미래 KT 외야진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OSEN

마운드 1~3 선발·4번 타자…투타 중심 이끈다

용병 4인방

국내 프로야구 팀들의 성적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크게 좌우된다. 보통 외국인 투수 2명은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타자는 팀의 중심타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투수 1명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신생팀 KT 위즈로서는 이 선수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KT가 외국인 선수들과 일찌감치 계약을 마치고 올 시즌을 준비한 이유다. 필 어윈, 앤드류 시스코, 크리스 옥스프링의 투수 3명과 주전 3루수 앤디 마르테가 그 주인공이다. /이다

좌완 구속 151㎞ 앤디 시스코

좌완 투수 **앤디 시스코**는 신장 208㎝로 KBO 등록 선수 중 최장신이다. 2001년 미국 시카고 컵스에 2라운드로 지명돼 2006년 캔자스시티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07년까지 3년 동안 활약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3시즌 동안 151경기서 3승 9패 평균자책점 5.18을 마크했다. 이후 마이너리그를 전전한 시스코는 2013년부터 대만리그 EDA 라이노스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그해 다승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으로 한국 구단들의 시선을 끌었다. 결국 KT는 지난해 퓨처스리그 중반에 시스코를 영입했고 합격점을 받으며 올 시즌 1군에서도 함께 하게 됐다.

시스코의 주무기는 큰 키에서 내리 꽂는 150㎞에 육박하는 패스트볼이다. 그 외에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시범경기 동안에서는 3경기 2패 평균자책점 10.29로 다소 부진했다. 제구가 흔들리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지만 상대 타자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구질 점검에 힘썼다. 이제 1군 무대를 통해 진짜 시험대에 오른다.

우완 정통파 투수 필 어윈

필 어윈은 우완 정통파 투수로 2009년 피츠버그에 입단했으며 2012년부터 3년간 메이저 40인 로스터에 합류한 바 있는 유망주였다. 2013년에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기도 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04경기에 등판해 35승 20패 평균자책점 3.28을 기록했다.

정명원 투수 코치는 어윈 영입 당시 "150이닝 이상을 꾸준히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평가했다. 최고 구속 148㎞의 패스트볼을 던지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기교파 투수다. 친한 한국인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에 익숙한 어윈은 일본 스프링캠프 때부터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시범경기 3경기에서는 15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40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뽐냈다. 아직 이닝 소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받지 못했지만 현재 KT의 1선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수 용병 크리스 옥스프링

크리스 옥스프링은 한국 팬에게는 이미 친숙한 이름이다. 2007년 LG 트윈스에서 한국프로야구에 데뷔했다. 벌써 한국에서만 선수생활 5년째를 맞이한다. 국내 리그서 4시즌 동안 37승 30패 평균자책점 3.73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도 롯데 유니폼을 입고 10승 8패 평균자책점 4.20을 마크할 정도로 건재했다.

KT는 옥스프링의 경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범현 감독은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빠른 리그 적응을 위해 국내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필요해 전략적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이닝도 많이 소화하고 검증 되었다.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선수다. 성격도 괜찮다고 들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안정감과 경험이 옥스프링의 가장 중요한 영입 배경이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본인 스스로 "열심히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만한 효자 용병을 찾기는 쉽지 않다.

3루 유망주 앤디 마르테

외국인 타자 **앤디 마르테**는 이름값 면에서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마르테는 2001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유망주로 입단했다.

큰 기대를 모았던 내야수였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 200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7시즌 통산 308경기서 타율 0.218에 21홈런 99타점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132경기를 뛰며 타율 0.282에 182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좋았다.

이숭용 타격 코치는 마르테를 두고 "타율 3할대에 20홈런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무조건 휘두르기보다는 선구안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3루 수비 능력 역시 한국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스프링캠프에서는 하루 2000개의 배팅 훈련을 소화할 정도로 성실한 모습도 보였다. 시범경기에서는 2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서서히 타격감을 올렸다. 올 시즌 KT의 중심타자로 활약할 전망이다.

KT 위즈파크 전경 모습

KT 위즈 제공

KT 위즈파크, 첨단 IT기술로 새 단장

"야구도 스마트하게 즐기자"

기존 수원야구장을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된 최신식 설비로 리모델링한 KT 위즈파크가 31일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중몰이에 나선다.

프로야구 신생 1군 KT 위즈의 홈구장인 KT 위즈파크는 지상4층 연면적 1만9939㎡, 관람석 2만2천석 규모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최첨단 야구장으로, 메이저리그 구장처럼 관중편의와 선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탈바꿈했다.

가로 28m 세로 9m의 풀HD전광판을 비롯해 '익사이팅존'과 '지니존'은 선수들의 생생한 표정과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바비큐 등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펍'을 조성하고 외야석 일부는 잔디스탠드로 만들었다.

또 선수친화성을 강조해 선수들이 쾌적의 조건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자연광 수준의 빛을 내 눈부심을 방지하는 첨단 플라즈마 조명탑을 설치했다. 또 기존 펜스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로 교체했다.

친환경적인 요소도 반영됐다. 리모델링단계에서 친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해 야구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13%를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1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KT 위즈파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다. 위잽(Wizzap) 어플리케이션, 기가(GiGA) 비콘서비스, NFC태그, 기가 와이파이 등 IT기술을 접목해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전용 앱 '위잽' 통해 티켓 예매·식음료 주문결제 가능

KT wiz 전 경기 실시간 중계방송 보고 선수기록 확인

KT 위즈 야구단 공식 앱인 '위잽'은 한 화면에서 경기도 보면서 스코어, 선수 정보까지 볼 수 있다. 입장이 편리한 스마트티켓 기능과 식음료 예약·배달을 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 기능, 실시간 중계 기록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갖췄다.

위잽을 내려받은 관객들은 KT 위즈 홈 경기에 한해 전 경기 티켓 예매를 할 수 있고 예매 후 각종 할인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또 결제 후 모바일 티켓으로 '스마트 빌권', 경기 당일 위잽으로 입장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는 지니존, BC라운지존, 케이코존, 엠모바일존 등 특정 프리미엄 좌석에서 경기를 보며 음식을 주문, 현장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티켓 예매 후 미리 주문하는 '예약주문'과 경기당일 야구 관람 중 주문하는 '바로주문' 기능이 있다.

예약주문시 경기 당일 수령시간 예약도 가능하다. 바로주문시 예약시간에 직접 수령하고 프리미엄 좌석(스카이박스, 중앙테이블 1~3루 테이블석)의 경우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

KT 위즈 팬들은 위잽을 통해 전 경기의 실시간 중계 방송도 볼 수 있다. 실시간 중계 서비스는 기존 유사 모바일 중계 방송 서비스와 달리 방송 화면 아래에 메이저리그급 정보를 KT 위즈 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상세 정보도 동시에 알 수 있다.

투수는 IRS(승계주자실점률), 뜬공·땅볼처리비율, 퀄리티스타트플러스(7이닝), 터프세이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타자에게도 BABIP(인플레이타구 타율), OPS플러스(구장효과가 추가된 OPS) 정보가 제공된다.

경기장 입구부터 좌석까지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장한 고객은 비콘서비스를 통해 구단 알림사항, 구장 소개, 본인 좌석 정보 확인, 입점매장 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T 위즈가 KT를 모기업으로 둔 야구단답게 무제한 기가 와이파이를 타구장보다 3배 더 설치했으며 2만여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KT 위즈 관계자는 "KT 위즈파크 전 좌석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KT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첨단 IT기술을 야구장에 적용해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happyjh@metroseoul.co.kr

쇼핑을 Play 하다!

kt 그룹이 제공하는 스마트한 쇼핑 세상!
리모컨을 통해 펼쳐지는 나만의 쇼핑 공간!

맞춤형 선택 쇼핑공간

K 쇼핑 www.kshop.co.kr

‘야구장의 꽃’ KT위즈 치어리더 ‘레이디위즈’

"첫 시즌인만큼 부담도 있지만 설렘도 커요"

야구만 보나요? 맥주·BBQ도 즐겨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구장은 지금은 사라진 현대 유니콘스의 홈구장이었다. 지난 2007년 10월 5일에 열린 현대 유니콘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수원구장에서 열린 마지막 프로야구 1군 경기였다.

전국고교야구 등 아마추어 대회만 열리는 등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던 수원구장은 올해 프로야구 제10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KT 위즈를 만나 다시 태어났다. 수원시는 KT와 함께 약 3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원구장을 리모델링해 지상 4층, 연면적 1만9939㎡, 관람석 2만석 규모로 새 단장했다. 이름도 KT 위즈 파크로 바뀌었다.

야구 팬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KT 위즈 파크는 보다 다양한 경기 관람 경험을 위해 관람석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국내 구단 최초로 도입한 스포츠펍인 하이트펍이다.

이 펍은 1·2층 구조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야외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맥주와 스낵을 즐기며 야구 관람이 가능하다. 외관은 안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다. 선수들에게 괜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팬들이 편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팬 만족도 제고를 위해 파티플로어와 외야 잔디석, BBQ석 등 공원 개념의 관람석도 도입했다. 파티플로어는 3층 스카이박스 양측 면에 위치하며 각각 136석 규모로 메뉴의 선택을 포함한 식사와 경기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외야 좌측에 위치한 BBQ석은 4인 테이블석을 설치해 좌석에서 음식을 조리하며 야구를 관람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외야잔디석은 딱딱한 의자가 아닌 잔디에 앉아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최적화돼 있다.

팬들에게는 보다 새롭고 다양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단에게는 수익 증대의 역할을 하는 프리미엄석도 다채롭다. 포수 후면에는 메이저리그 수준의 홈플레이트 밀착형 테이블을 설치한 지니존과 BC라운지존, 게보바일존이 마련됐다. 덕아웃 바로 옆에 위치한 익사이팅존은 구장 내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다. 선수들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설치해 각종 모임이 가능한 단체실 스카이라이프존, 커플들에게 최적화된 테이블석인 커플석도 있다.

일반 지정석과 자유석은 리모델링을 통해 관중석의 앞뒤 간격과 좌석 폭을 넓히는 등 세세한 변화도 추구했다. 모든 좌석에는 양쪽에 컵걸이를 설치해 옆에 앉은 사람으로 인한 불편함도 최소화했다.

1루 매표소 옆에는 '위즈 파크'라는 이름의 특별한 홍보관도 설치돼 있다. 대관 유치를 위해 제작된 곳으로 기업홍보와 신상품 런칭 행사, 차량 전시 등에 활용된다. 평상시에는 팬들의 쉼터로 이용되며 선수단 팬사인회와 야구용품 판매 등의 행사장소로도 이용될 계획이다.

KT 위즈 파크는 선수들에게도 편안한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했다. 선수의 시야를 보호하는 플라즈마 조명탑과 메이저리그식 덕아웃을 설치했으며 불펜과 라커룸도 확장했다. 그라운드도 전면 교체해 사계절 잔디와 메이저리그 수준의 흙을 확보했다. 선수 보호를 위한 안전펜스도 갖춰 만약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했다.

그동안 수원을 연고지로 선택했던 팀들은 수원 팬의 민심을 얻지는 못했다. 수원을 서울로 입성하기 위한 임시 거처로 여겨 구단과 수원시 모두 구장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는 홈구장을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연고지 밀착 마케팅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새롭게 태어난 KT 위즈 파크

수원시·KT, 337억 들여 수원구장 새 단장
팬 요구 반영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조명탑·덕아웃 등 선수 위한 시설 개선도

KT 위즈 파크 외야잔디석

KT 위즈 파크 파티플로어

KT 위즈 파크의 BBQ석

KT 위즈 파크 1루 내야 익사이팅석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한국 프로야구 제10구단 KT 위즈의 새 둥지 수원 KT 위즈 파크 개장식에서 화려한 축포가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 핵심 점포 증축 전쟁

롯데百 본점, 유커 겨냥 8~9층 증축 · 현대百 본점도 2개 층 늘려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성장이 멈춘 백화점업계가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 경기 불황에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신규 출점마저 쉽지 않자 핵심 점포의 증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소공로 본점 뒤편 주차장에 8~9층 규모의 백화점 건물을 하나 더 짓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영업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지난 2005년 명품 백화점인 에비뉴엘 건설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최근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와 현대도 핵심 점포 증축에 돌입한 상태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강남터미널 사이에 있는 6층 규모의 판매시설을 11층까지 5개층을 높이는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서점과 아케이드도 매장으로 탈바꿈 시킨다. 증축이 마무리되면 신세계 강남점의 연면적은 26만7052㎡에서 28만7165㎡로 약 2만여㎡가 늘어난다.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은 현재 지하 2층, 지상 5층인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본점을 지상 7층으로 증축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의 압구정 본점 증축은 1985년 개점 이후 약 30년 만이다. 압구정 본점이 7층으로 증축을 마치면 영업면적은 현재 3만㎡에서 4만㎡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백화점 측은 증축을 통해 최고급 프리미엄 점포로 탈바꿈해 연 매출 1조원대 점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화점업계의 최근 신규 출점은 빈약한 상태다. 신세계는 지난해 4월 의정부점을 연 이후, 현대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충청점을 낸 이후 출점이 멈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과 아웃렛 공세 등 20~30여 년간 승승장구하던 백화점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만큼 생존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백화점도 변신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강화하고 덩치를 키우는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5818@metroseoul.co.kr

2015 프로야구 개막 메트로가 함께 응원합니다

바로 지금, 야구장에서 메트로신문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세요

메트로가 드리는 프로야구 개막 대박 선물대잔치에 참여하세요.

메트로신문은 팀당 144경기, 팀간 16차전을 통해 모두 720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들어간 올해 프로야구를 축하하며 응원현장에서 더욱 풍성하게 즐기라는 뜻에서 독자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는 4월7일까지 e-메일(metro@metroseoul.co.kr)이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 댓글과 함께 '야구장에서 메트로신문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첨부해 보내면 추첨을 통해 10명에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청구청소기와 광파오븐기, 특급호텔 숙박권 등 가족과 연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더 질 높은 컨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당첨자는 4월 9일 개별 통보합니다.

- 응모기간 4월 7일까지
- 당첨자발표 4월 9일
- 경품내용
  - 한경희생활과학 청구칼러 2명
  - 한경희생활과학 광파오븐 홈쉐프 1명
  - 신라스테이 동탄 디럭스 숙박권(1박) 3명
  - 신라스테이 역삼·동탄 스탠다드 숙박권(1박) 4명

metro

종근당건강 '생생한인지력1899'로 치매 예방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은 인지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두뇌 건강기능식품 '생생한인지력1899'(사진)를 출시했다.

'생생한인지력1899'는 뇌세포의 구성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성분으로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비타민E)과 뇌혈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마늘유가 함유됐다.

주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 주며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인 예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 노화로 인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매일 200~300㎎을 8~12주간 섭취한 경우 노화로 감퇴된 인지력 개선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인지력 개선과 치매예방에 대한 효능을 허용했다.

콩에서 추출한 주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은 1일 섭취량 300㎎을 식품으로 환산할 경우 콩 28㎏을 섭취해야 한다. 제품명의 1899는 18세의 기억력을 99세까지 이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1개월분 8만~9만원. 문의 080-977-3308

/이세경기자 seven@

강강술래, 봄나들이 '반값' 행사

홈페이지 도서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인기 가공상품을 50% 할인 판매하는 '봄나들이 반값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kssl.biz-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3만원), 정정한우 명갈비세트(360g X 3박스·3만3000원), 특양지한돈카레이니(450g·3박스·2만1000원)를 각각 50% 할인 판매한다.

이 외에, 홍돈한돈카스(170g·3박스·2만5500원)와 모둠돈까스(720g·3박스·3만원),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2만2400원)도 5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육개장선물세트(500㎖·7팩·14인분)와 갈비탕선물세트(500㎖·7팩·14인분)를 각각 30% 할인해주고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60㎖·2팩)을 덤으로 준다.

홈페이지에 신청글을 남기면 김벗 추천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4월 진행한다.

/이세경기자 seven@

CJ, 국내 첫 '비타민D' 함유 포장두부 출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 이재현)이 가격 할인 경쟁 중심의 포장두부 시장에서 '영양성분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주력 두부제품인 '행복한콩 국산콩 두부'를 두부의 칼슘성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를 함유한 '행복한콩 국산콩 비타민 D 두부'로 전면 리뉴얼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양가가 높고 일상적인 음식으로 각광받는 두부에 한층 더 영양성분을 강화한 '건강한 두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행복한콩 국산콩 비타민D 두부 한 모에는 성인 1일 비타민D 권장섭취량인 5㎍(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다.

여기에 명품 천일염 '오천년의 신비'를 첨가해 기존 두부의 고소한 맛을 한층 더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할인점 기준 300g에 3280원이다.

/유수정기자 kssj0215@

하이트·KT 공동마케팅

hite ktwiz

하이트진로의 하이트는 사람들간의 다양한 관계 형성 속에 하이트가 그 중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뭐라고' 캠페인 일환으로 kt 위즈와 손잡고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시즌 동안 캠페인의 키워드인 '뭐라고'를 활용해 kt 위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가를 함께 만드는 것 외에 경기 중 이닝 간 '뭐라고' 타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일감 몰아주기에도 '마이너스'

동국제강 문제 계열사 '페럼인프라' 영업실적은?
작년 영업손실 204억… 전년比 매출 9.3% ↓

동국제강(회장 장세주)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외 계열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장 회장과 자녀 등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페럼인프라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동국제강 사옥 '페럼타워'를 관리하는 회사다. 페럼인프라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 건물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페럼인프라의 지분 63.84%를 보유한 지배회사다.

페럼인프라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는 ㈜동국(8.01%), 인터지스(0.78%) 등이 있다.

장 회장을 비롯한 직계 가족들은 0.09%(2만주)씩 0.63%(1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과 장선익, 장승익, 장세욱, 장훈익, 장효진, 장문경 등 6인이 각 0.9%를 쥐고 있다.

이에 그룹사와 친족이 보유한 총 지분율은 73.24%에 이른다.

페럼인프라의 영업실적을 보면 2013년 매출 50억원, 영업이익 4000만원, 당기순이익 1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동국제강으로부터 31억원의 매출을 냈다.

동국제강 계열사인 유니온스틸과 디케이유엔씨, 인터지스 등을 합한 매출 거래는 36억원에 이른다.

페럼인프라는 그해 동국제강 50억원, 유니온스틸 50억원, 인터지스 10억원 등 그룹으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실시한 바 있다.

2012년에도 페럼인프라는 동국제강 32억원, 유니온스틸 20억원 등 내부 거래로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해 영업실적은 매출 53억원에 영업이익 2억2000만원, 당기순이익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옥 관리업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조685억원에 영업손실 204억원, 당기순손실 2925억원을 냈다.

전년 대비 매출은 9.3% 줄고 영업이익은 811억원에서 1015억 줄어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47.0% 악화된 규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동국제강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BBB+'로 한 단계 내렸다.

김도현 나이스신평 선임연구원은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됐고, 회사 보유 유동성 규모(별도기준)가 급감하는 등 재무안정성 저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유상증자와 더불어 계열사인 유니온스틸과 합병을 완료했지만 관계사에 대한 출자부담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로 향후 차입금 감축과 재무구조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원기자 [illegible]

KAI, 한국형전투기 사업 우선협상업체 선정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KAI가 KF-X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AI에 따르면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기간 10년6개월, 개발비 8조6700억원, 양산포함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

KAI는 5월까지 상세 개발일정과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KF-X 체계개발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 말 방위사업청과 본계약 체결을 통해 2025년 11월 개발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 한국형전투기 전력화를 끝낼 계획이다.

하성용 KAI 사장(사진)은 "FA-50, 수리온 헬기 개발 등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오랜 염원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며 "공군의 전력화는 물론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獨 다임러 전기차, LG화학 배터리로 달린다

2016년 EV모델부터

LG화학은 최근 다임러그룹과 소형자동차 스마트(Smart)의 차세대 전기차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다임러가 출시할 2016년형 스마트 순수전기차(EV) 모델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된 셀은 다임러의 자회사 계열에서 팩 형태로 제조돼 차량에 탑재된다.

LG화학은 다임러그룹을 고객사로 추가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가치 상위 20개사 중 13개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2014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회사명	브랜드 가치	순위	회사명	브랜드 가치
1	도요타	24,903	11	푸조	7,123
2	BMW	28,952	12	쉐보레	7,082
3	폭스바겐	27,012	13	뷰익	6,421
4	메르세데스-벤츠	24,172	14	기아차	6,350
5	혼다	22,152	15	스즈키	5,335
6	닛산	21,184	16	[illegible]	5,179
7	포드	20,296	17	다임러	5,065
8	포르쉐	11,310	18	GM	4,842
9	현대차	8,236	19	마쯔다	4,511
10	르노	8,019	20	랜드로버	4,339

LG화학은 현재 영국 브랜드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순위의 상위 20개 브랜드 중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 르노, 아우디, 쉐보레, 기아차, 다임러, GM 등을 포함해 13개(공개불가 4곳 포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현대차, 올 상반기 경력직 공채

현대자동차는 2015년 경력사원 상시 공개채용과 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을 30일 시작했다.

지원 접수는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hyundai.com)를 통해 진행된다. 경력사원 상시 공개채용 모집 대상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학위 취득자(올해 8월 졸업 예정자 포함)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직무면접 ▲인성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형별 합격 여부는 채용 홈페이지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안내된다.

신입 국내대학 박사 공개채용 모집 대상은 국내 정규대학 박사학위 취득예정자(15년 8월 및 16년 2월)와 박사 후 과정(Post Doc.)에 해당한다.

/이승용기자

기아차 '7인승 카니발' 추가

기아차는 2015 카니발을 출시하며 기존 9, 11인승에 7인승 모델인 '카니발 리무진'(사진)을 추가했다. 30일 서울 압구정동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2015 카니발' 시판발표회를 열고 판매에 들어갔다.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V6 람다 II 3.3 GDI 엔진은 최고출력 280마력(ps), 최대토크 34.3kg·m, 복합연비는 8.1km/ℓ이다.

R2.2 E-VGT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202마력(ps), 최대토크 45kg·m, 복합연비는 11.2km/ℓ다.

카니발 리무진은 ▲VIP 라운지 시트 ▲4:4분할 싱킹 시트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프레지던트 트림) ▲가죽+우드그레인 스티어링휠 ▲파워 슬라이딩 도어 ▲고급형 MP3 CDP 오디오 등을 채택했다.

9인승과 11인승 모델은 ▲루프랙 공력을 개선하고 ▲실버(18인치), 크롬(19인치) 휠캡을 장착했다.

실내는 ▲2열 헤레스트에 각도 조절 기능을 추가하고 ▲9인승의 3열에 암레스트와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를 적용했다.

판매가격은 리무진(7인승) 디젤 모델이 3530만~3890만원, 가솔린 모델이 3710만원이다. 9인승은 3020만~3650만원, 11인승은 2735만~3595만원이다.

/이승용기자

경기도-KT, 신산업 육성 맞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경기도와 KT가 IT에 문화·금융·건강·안전 등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과 국내 벤처·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30일 엔씨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안랩 등이 자리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공공지원센터에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1620㎡의 규모다. 공공지원센터의 1층과 5층을 사용하는데 1층(340㎡)은 개방형 창의혁신 공간과 네트워킹 공간으로, 5층(1280㎡)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비롯해 게임 소프트웨어 랩,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를 마련됐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G-Alliance(글로벌연합체)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공기관을 연계해 전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 해외전시회와 데모데이(Demo Day)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투자박람회를 개최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혁신센터와 공공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 인프라를 하나로 연계해 전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기기자 [illegible]

中 본토주식 투자정보 한 눈에

신한금융투자 '차이나 내비게이터' 오픈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가 중국본토 상해A주 대표종목을 업종별로 모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차이나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해A주 거래고객에게 실시간 종목시세를 무상제공하는 이벤트다.

'차이나 내비게이터'는 거래량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은 상해A주 118개, 홍콩 194개 등 총 312개 대표종목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향후 선강퉁이 시행되면 심천A주 종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차이나 내비게이터'는 신한금융투자의 HTS '신한아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업종별 등락률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투자상황판(화면번호 3630), 업종별 대표종목의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한China섹터(화면번호 3631) 두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를 통해 다양한 중국본토주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중국 증권시장분석과 추천종목 자료가 담긴 월간 '신한중국비서'를 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현지 리서치회사인 차이나윈도우를 통해 중국 본토주 리서치자료와 주요 산업별 통계, 경제지표자료 등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 최초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한 고객에게 실시간 종목시세를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3월 30일부터는 당월 1건이라도 상해A주를 거래한 고객에게 다음 1개월간 실시간 종목시세를 무상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윤범인 글로벌사업부장은 "중국 본토주에 대한 관심이 크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시장 참여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면서 "신한금융투자는 다양한 중국본토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선강퉁 제도가 시행되면 즉각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가기자 mm@

대우건설 '동탄2 푸르지오' 견본주택 오픈

대우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1블록에 공급하는 '동탄2신도시2차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다음달 3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5~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 256가구 ▲84㎡ 576가구 등 전체 832가구 규모다.

동탄1신도시와도 인접해 1·2신도시 양쪽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부지 바로 남쪽으로 흐르는 지동천을 따라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다. 인근 오산천을 따라 조성된 반석산근린공원, 노작공원, 근재봉공원 등 생태공원들과도 가깝다.

수서발 KTX(2016년 개통 예정), 동탄~일산 GTX(2021년 개통 예정)가 지나는 동탄역(가칭)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2021년 개통 예정) 등의 도로망도 갖췄다.

동탄2신도시2차 푸르지오 조감도.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서고, 바로 옆으로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는 등 원스톱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고 있어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100만원대 초반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능동 634-1번지 국철1호선 서동탄역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6월이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49
독자센터 (02)721-9801
2008년 5월 24일 ...

경기, 오늘부터 복비 '반값'

전세가 6억원 수수료 540만원서 300만원으로

인천·대구·경북도 도입 서울, 공청회 후 재심사

경기지역에서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수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앞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한편 강원·경기에 이어 인천·대구·경북 등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도 관련 조례 통과를 위한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만 도입 확정이 안 돼 시의회의 결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일부개정조례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먼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보수 요율 변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소 고문은 "수도권과 서울의 올해 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각각 3만7502건, 1만2990건으로 전년 대비 각 4.3%, 10.4% 증가했다"며 "이는 부동산거래활성화가 부동산중개보수 인하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어 "중개보수는 자율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굳이 조정을 해야 한다면 점률로 명확히 규정해 공인중개사와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metroseoul.co.kr

10년 임대 후 분양… 취득·재산세 걱정 뚝

금강주택 '금강펜테리움 2차' 동탄2 첫 민간 임대 4월 분양

금강주택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4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2차' 906가구를 4월 분양한다.

금강주택은 이번 A64블록 외 올해 A19블록과 A46블록에서도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분양해 성공을 거둔 A39블록까지 포함해 금강펜테리움 브랜드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2차는 동탄2신도시 최초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69㎡와 84㎡로 구성된다. 취득·재산세 부담 없이 10년(최소 5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지 녹지율 31%가 적용되고,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조감도.

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수서~평택간 KTX가 개통하면 20여 분 만에 수서까지 이동할 수 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교육·자연환경이 우수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라며 "기존 임대아파트와 차별화된 마감재와 합리적인 분양가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1899-5733

/박선옥기자

신세경 '초감각 소녀' 변신

SBS '냄보소'서 박유천과 호흡…"실제 시력은 둔해"

SBS 새 수목극 '냄새를 보는 소녀' 신세경, 박유천.

두 사람이 출연하는 SBS 새 수목극 '냄새를 보는 소녀'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바코드 살인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무감각한 남자 최무각(박유천)과 사고를 당한 후 이전 기억을 모두 잃은 초감각 소유자인 오초림(신세경)의 이야기다.

30일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신세경은 "시력이 둔하다"며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안보여서 아는 사이인데도 인사를 못할 때가 있다. 노안이 빨리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초감각을 뽐내는 극 중 캐릭터와 전혀 다른 점을 말했다.

박유천은 이날 같은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 청각이 둔한 것으로 결론을 지어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그는 "최무각은 무표정하고 엉뚱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오초림이 옆에서 많이 북돋워주고 있다"며 "웃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을 억제하고 무표정을 짓는 게 가장 힘들다"고 촬영 비화를 공개했다.

드라마는 '하이드 지킬, 나' 후속 작으로 내달 1일 첫 방송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그룹 엑소(EXO)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SMTOWN 코엑스아티움에서 정규 2집 'EXODUS'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illegible]기자 son@

엑소 정규 2집 '엑소더스' 발표
타이틀곡 '콜 미…' 음원차트 1위

그룹 엑소(EXO)가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30일 정오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중독'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멤버 2명이 연이어 탈퇴하는 등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달 초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굳건함을 보여줬다.

리더 수호는 30일 오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엑소더스'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10명으로 새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엑소는 앞서 28일 오전 0시 타이틀곡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를 먼저 공개해 9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쓸며 성공적인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수호는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실 줄 몰랐다.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콜 미 베이비' 1위 석권에 이어 오프라인 음반 예약 물량도 모두 매진됐다. 정규 1집 100만장 판매고를 올린 엑소다운 성적이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star bag

연예부 기자로 첫 걸음

배우 **박보영**이 영화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감독 정기훈) 첫 촬영을 했다. 박보영이 분한 도라희는 스포츠지 연예부 수습기자이자 사회 초년생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첫 촬영에서 박보영은 입사하자마자 현장에 긴급 투입되는 도라희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영화는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FM' 발매 기념 팬 사인회

걸그룹 **크레용팝**이 지난 29일 두 번째 미니앨범 'FM' 발매 기념 팬 사인회를 열었다. 앨범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팬과 함께했다. 크레용팝은 'FM' 무대 의상 중 하나인 카모플라주 패턴의 운동복을 입고 사인회에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크레용팝은 31일 SBS MTV '더 쇼'에 출연한다.

'댄싱9' 특별 셰프로 변신

스타 셰프 **최현석**이 엠넷 '댄싱9 시즌3' 올스타전 첫 방송에 깜짝 출연한다. 올스타 점에 멤버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음식을 만들 예정이다. '댄싱9' 측은 "멤버들은 최현석 셰프의 특별식을 먹고 원기를 충전해 멋진 대결을 펼쳤다"며 "최현석의 뛰어난 예능감이 재미를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3일 오후 11시 첫 방송.

전직 여형사의 액션

배우 **김정은**이 액션 연습에 한창이다. MBC 새 주말극 '여자를 울려'에서 전직 형사 출신 아줌마 덕인 역을 맡았다. 첫 촬영에서 그동안 배웠던 액션을 깔끔하게 해 현장 분위기를 돋웠다. 액션 스쿨에 일주일에 5번 출석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여자를 울려'는 '장미빛 연인들' 후속작으로 내달 중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1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illegible]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05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30 [illegible] 놀이터 (4) 20 [illegible] Pop Pop (4) 45 어디 갔니 GO? (4) 55 EBS [illegible] (5)
19시	00 KBS 뉴스 7 30 [illegible]	00 [illegible]	15 [illegible] 00 MBC스포츠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20 달려라 장미 (13회)	[illegible] 20 [illegible] 30 [illegible] Family (7)
20시	25 당신만이 내 사랑 (92회)	00 [illegible] 55 1 대 100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illegible] 30 다큐 [illegible] 45 EBS [illegible]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illegible]	00 블러드 (14회)	00 MBC 뉴스데스크 55 빛나거나 미치거나 (12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12회)	50 EBS [illegible] (4)
23시	30 KBS 뉴스라인 40 [illegible]	15 우리동네 예체능		15 [illegible]	20 [illegible] (4)
24시	30 [illegible]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illegible]	15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10 나이트라인	[illegible] 3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30 [illegible] (18회)		30 [illegible] (20회)	30 TV [illegible]	18:50 ◆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뉴질랜드 (MBC) 18:30 ◆ 프로야구 KIA vs SK (SPO TV, SPO TV+) 롯데 vs LG (MBC SPORTS+, SPO TV2) 두산 vs 한화 (SBS CNBC, [illegible] SPORTS) 삼성 vs KT (SKY SPORTS) 넥센 vs NC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illegible]			
20시	50 JTBC 뉴스룸	45 오 마이 갓 [illegible]	00 오늘 뭐 먹지? (2회) 50 오늘 뭐 먹지? (3회)	00 [illegible] (3회)	
21시	40 [illegible] 간다 (22회)	40 꽃보다 할배 [illegible]	00 [illegible] 2015 (11회)	00 [illegible]	
22시			00 오늘 뭐 먹지? (4회) 50 오늘 뭐 먹지? (2회)	00 [illegible] (3회) 50 [illegible] (4회)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33회)	00 호구의 사랑 (16회)	50 [illegible] 2015 (11회)	00 [illegible]	
24시	20 [illegible] (93회)	20 [illegible] (73회)	00 [illegible] 10 [illegible] 20 [illegible] 50 [illegible]	00 [illegible]	